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40 웰컴 투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튼튼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00 집나간가족(재)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재)	00 MBC 여성토론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四色	00 SBS12뉴스 30 닥터 365 35 KBC 열린토론회(재)
0	30 뉴스 특급	00 TV 고아라 50 콘서트 필(재)		10 MBC 네트워크특선 〈고려인, 문명을 새기다〉	35 영상기행 한국의 명소
2	4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우주의 기적 생명〉(재)	05 다큐+감성	00 SBS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쥬로링 동물탐정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키즈 숲속마을 붕붕붕	1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재)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 체조(재)	25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55 밥상의 신(재)	30 똑?똑!키즈스쿨	00 매일엄마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0	20 갈 데까지 가보자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뻐꾸기 둥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백일섭의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뉴스 35 KBC 8 뉴스
9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55 생활의 달인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긴급출동 24시	00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00 월화 드라마 〈트라이앵글〉	00 월화드라마 〈유혹〉
0	00 라이벌 매치 압도적(재)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더 라인	15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부부극장 콩깍지(재)	30 TV, 책을 보다(재) ①:10 T 타임 40 알약톡톡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걸작드라마 〈오펀 블랙 시즌2〉 ①:35 특파원 현장보고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MBC배 전국수영대회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골프

EBS

eview
ţ(재)
뽀잉(재)
스(재)
보(재)
(재)
파오(재)
기즈(재)

09:40 부모 〈가족을 위한 식단〉 10:10 EBS 특강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다이내믹! 필리핀군도〉(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3:05 지식채널e 13: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3:3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3:5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14:15 와글와글 친구들

14:20 꿀꿀! 페파는 즐거워

15:00 초능력 특공대 15:15 모피와 친구들 15:30 제로니모의 모험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4:45 미앤마이로봇

19:30 EBS뉴스 19:50 대한민국 항해 프로젝트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도미니카공화국〉 21:30 한국기행 (여름강변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인간과 애니메이션, 잡초〉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01:00 EBS 걸작 다큐멘터리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EBS플러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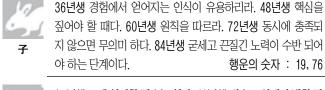
	알짜 국어 된			•	l과서에 나오는
00:50	2013 논구설	È		불교문화	
	(인문기	계 주제별 기출분석〉	12:15	수능완성	〈수학 I A형〉
01:40	올림포스 〈'	영어독해의 기본 🛘 🔪	13:05	"	〈수학Ⅱ〉
02:30	"	〈수학 I 〉	14:00	"	〈국어A형〉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압축탐스런	〈물리ㅣ〉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영	명어독해 기본 I 〉(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9:10	"	〈수학 I 〉(재)	21:00	"	〈수학 A형〉(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5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	화법과 작문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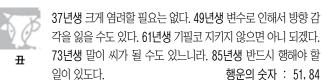
EBS플러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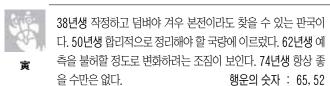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나의 성공비결 08:00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시험대비강좌	15:5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16:5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대비 강좌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50 " 〈수학 1(상)〉	〈전과목 5-1〉
10:30 " (역사 1)	18:00 TV 중학 〈문학 3〉
11:10 " 〈국어③④〉	18:40 " (비문학 3)
11:50 " 〈수학 2(상)〉	19:30 중학 과학 자유탐구
12:30 등업신공 〈수학 1(상)〉	20:00 중학단기특강 〈영어①〉
13:10 " 〈수학 2(상)〉	20:40 " 〈수학①〉
13:50 " 〈과학 2(상)〉	21:20 " (영어②)
14:30 " 〈수학 2(상)〉(재)	22:00 " 〈수학②〉
15:20 초등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EBSTV여름방학특강 중학3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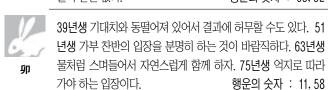
知天命이 설문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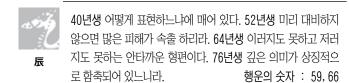
7월 21일(음 6월 25일 癸巳)











41년생 방심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53년생 성공의 길 로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리라. 65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피 해가 엄청날 것이다. 77년생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8,34



42년생 인간관계 속에서 크게 허덕이는 모습이다. 54년생 기본 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만회할 기회가 흔하지 않겠다. 78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행운의 숫자 : 92, 25



43년생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언급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 로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55년생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67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79년생 아무런 지장이 없다. 행운의 숫자 : 26, 35



44년생 노후 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으리라. 56년생 분위기 의 조성이 일차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68년생 매끄러운 마무 리가 이미지를 좌우 하겠다. 80년생 상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행운의 숫자 : 04, 40



45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실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자. 57 년생 예리한 관찰력으로 용의주도함이 요청된다. 69년생 터무니 없는 소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81년생 움직인다면 상당 한 진척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6,95



46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58년생 파격적 인 변화는 향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70년생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82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의 여신이 길을 안내하고 있는 구도이다. 행운의 숫자 : 41, 18



47년생 구관이 명관이요, 노물이 새 것보다 낫겠다. 59년생 제3 자로부터 예기치 않은 구설을 들을 수도 있다. 71년생 외관은 보 잘 것 없더라도 실속은 있느니라. 83년생 목표를 향해 진일보하 는 성과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50,7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4년만의 충무로…밤잠도 설쳐요"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조유 役 강동원

서늘한 눈빛과 휘날리는 긴 머리칼. 도포가 헐거워 보일 정 도의 메마른 몸.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이하 군도)에서 서자 출신의 야심가 조윤을 연기한 강동원의 모습이다.

배우 강동원이 돌아왔다. '초능력자'(2010) 이후 군대에 갔던 그는 4년 만에 충무로에 복귀했다. 19세기 말을 시대적 배경으 로 한 '군도'의 출연은 2년 전 사석에서 윤종빈 감독을 본 게 시 발점이었다.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 양반 범상치 않다. 영화 잘 찍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귀작으로 사극을 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장르에 대한 애착도 없고요. 감독에 대한 믿음이 컸습 니다."

카페에서 만난 강동원의 말이다.

장편 영화만 10편을 넘게 찍은 톱배우지만 4년의 공백이 주 는 여파는 꽤 컸다. 개봉을 앞두고 일상생활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밤은 불면의 고통을 안겼다.

"요즘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긴장도 많이 되고요. 시 사회 전날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감독님과 만나 술 한 잔을 했 어요. 집에 돌아와 조금 자고 일어났다가 월드컵 결승전을 봤 죠. 후반쯤 수면유도제를 먹었는데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몽롱 한 상태로 연장전을 보고 나서 잠이 들었죠."(웃음)

그가 맡은 조윤은 나주 토호의 서자다. 민란 도중 가문의 적자가 살해되자 가문의 계승 을 노리는 비열한 인물이다. 잔인하지만, 천하제일을 다툴 정도로 뛰어난 무술실 력을 지녔다.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데 칼을 잘 써야 하잖아요. 4~5개월 정도 훈련했어 요. 액션장면이 많았지만 다치지 않은 이유 는 그런 훈련 덕인 것 같아요. 말 타는 것도 개 인적으로 잘 맞았어요. 재밌어서 열심히 탔습니다.'

고된 연습에도 긴 칼을 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한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칼이 길다 보니 상대와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액션 장면을 찍을 때 '이제 칼의 달인이 됐으니 절대 헛되이 치지 않는다'라고 농을 건네며 상대 배우를 안심시켰어요. 저도 긴장됐기 때문이죠. 또, 칼을 빨리 휘두르는 게 중요했기 때문 에 시간이 흐를수록 휘두르는 속도를 올리며 촬영했습니다."

오랜만에 복귀작이어서 그런지 애착도 남달랐다. 영화 촬영 이 끝나고 나서도 현장을 떠나기 싫었다고 한다. 데뷔 후 처음 으로 촬영을 끝내고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요. 되게 아쉬웠어요. 감독님과도 이야기가 잘 통 했고, 형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어요. 영화적인 배움도 많았습니 다. 오랜만에 연기해서 조윤이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게 중반 이후부터였어요. 끝내기가 아쉬웠죠. 심리적으 로 좀 더 릴렉스(이완)된 상태에서 조윤을 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죠. 촬영이 끝나고 더 찍고 싶었습니다."

137분에 이르는 긴 상영시간 동안 그의 인장을 새기는 도드 라진 장면이 있다. 의적단 우두머리 대호(이성민)와의 일대일 대결 장면이다. 그는 대호의 칼에 상투가 잘려나간 후 긴 머리 를 휘날린다. 샴푸 광고의 한 장면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다.

"부스스하게 가려고 했는데 모 실장님이 강력하게 긴 머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찍게 됐어요. 아직도 부스스한 머리가 좋다 고 생각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는 '대세남' 하정우와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 다. 강동원이 부유하고 준수한 '있는 집' 자제라면 하정우는 우 락부락한 백정출신이다. 강동원과는 역할도, 이미지도 겹치지 않는다.

그는 하정우에 대해 "너무 재밌는 형"이라고 말하면서도 라 이벌 의식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말했다.

"없다고 하면 웃기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어쨌든 좋은 관계에요. 너무 다르고, 이미지도 겹치지 않죠. 영화 끝나 고 형이 현대물로 작품 한 번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형이랑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독 하정우와 함께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공과 사 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일정한 거리를 둔 후 "작품을 조금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작품 수는 정우 형에 뒤지지 않는다"는 강동원은 "오랜만에 돌아왔다. 이번 작품은 향후 활동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라 며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와 흥행, 모두 욕심 있어요. 꿈은 크게 가지려고요."(웃음)

프라이머리 표절 '속박'벗었다

'아이 갓 씨' 원작자와 저작권 공동 분배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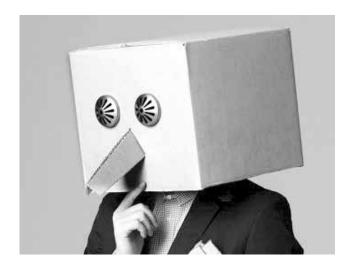
프로듀서 프라이머리(31·본명 최동훈)가 지난해 표절 시비 에 휘말린 곡들의 저작권을 해외 원작자와 공동 분배하기로 합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프라이머리는 지난해 11월 MBC '무 한도전-2013 자유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와 함께 '거머리'란 팀 으로 발표한 곡 '아이 갓 씨'(I Got C)의 저작권을 네덜란드 가 수 카로 에메랄드 곡의 원작자 데이비드 슈얼러스 등 6명과 공 동 분배하기로 했다.

'아이 갓 씨'는 발표 당시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자 일부분이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Liquid Lunch)와 비 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데이비드 슈얼러스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냈고 결국 '무한도전' 측은 프라이머리와 협의를 거쳐 이 곡의 음원 판매를 중단했다.

또 같은 시기 프라이머리가 작곡해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발 표한 노래 '미스터리'도 카로 에메랄드의 '원 데이'(One day) 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프라이머리 측은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된 만큼 카로 에메랄드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유니버설뮤직퍼블리 싱코리아의 중재로 수개월에 걸친 협의를 했고 최근 이들 곡의 저작권 분배에 합의했다.



조 대표는 이어 "표절에 대한 판단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 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이번 저작권 분배 가 프라이머리가 표절을 인정했다거나 원작자 측이 표절이라 고 단정 지은 것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아이 갓 씨'의 저작권이 프라 이머리와 다이나믹듀오의 개코, 데이비드 슈얼러스가 이끄는 '그랑 모노' 소속 작곡가 등 8명이 공동 작곡가로 올라가 있다.

또 '미스터리'의 저작권도 프라이머리와 데이비드 슈얼러스 등 3명이 작곡자로 돼 있다. /연합뉴스

감우성·수영 MBC '내 생애 봄날' 주인공 캐스팅

배우 감우성(44)과 소녀시대의 수영(24)이 오는 9월 방송되는 MBC TV 새 수목극 '내 생애 봄날'의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다고 MBC가 밝혔다.

'내 생애 봄날'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장기 이식을 통해 새 심장을 얻은 여자와 심장을 기증한 여인의 남편이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게 되는 휴먼 멜로 드라마다.

감우성은 축산업체 대표 강동하 역을 맡았다.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아이 둘을 홀로 키우지만, 아내의 심장 이식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여자 봄이(수영)를 만나면서 운명적인 사랑

을 하게 된다.

제작진은 "세포 기억설(Cellular Memory·장기 이식 수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증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이 수혜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라는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를 바 탕으로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명처럼 널 사랑해' 후속으로 방송된다.

/연합뉴스